

글로벌 물류기술 주간동향

Global Logistics Technology Weekly

2014. 11. 25

이슈

- 연비개선 및 친환경 사업으로 주목받는 재생타이어 산업

산업·기술 동향

- 싱가포르 우체국, 전자상거래 시장 겨냥한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
- 인도 물류회사, 아마존 등의 진출에 힘입어 고속 성장

정책 동향

- 이집트, 글로벌 물류센터 사업자 선정에 신중한 태도 일관

신규보고서

- 세계 주요 항만서비스 사업자 현황

기관·행사 동향

- eurasia rail Turkey

산업 · 기술 동향

싱가포르 우체국, 전자상거래 시장 겨냥한 대규모 물류센터 구축

(참고 : [‘Singapore Post to Build Logistics Hub in E-Commerce Bet’](#) ,
Wall Street Journal, 2014.10.15)

» 개요

- 싱가포르 우체국(Singapore Post)은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겨냥한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하기로 전격 결정하였음
 - 볼프강 베이어(Wolfgang Baier) 싱가포르 우체국 최고경영자는 아시아 각국의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역의 물류허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
-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물류센터 구축에는 약 1억 4,5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며, 201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
 - 총 시설 면적은 55만 3,000㎡로 일일 패키지 처리량은 10만 개 분량임
 - 싱가포르 우체국 관계자는 동 시설이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센터라는 점을 강조하며,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물류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

»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구축 배경

- 싱가포르 우체국은 최근 전통적인 우정사업의 채산성 악화를 만회하고자,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시장 진출을 결정했음

- 현재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은 전체 소매영업(retail sales)의 0.2%에 불과할 정도로, 아직 시장규모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
 - 스위스 금융그룹 UBS는 해당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이 5% 증가하고 저가의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될 경우 2015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약 21억 8,000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
 - 전문가들 역시 이 지역에 대한 향후 발전 잠재력을 매우 우수하게 평가하는 한편, 전자상거래 시장을 둘러싼 물류기업들의 시장 공략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고 있음

- 한편 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그룹(Alibaba Group) 역시 본격화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류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싱가포르 우체국 지분을 대거 인수하였음
 - 알리바바사는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비즈니스 구축을 목표로 올 5월부터 약 2억 4,000만 달러 규모의 싱가포르 우체국 지분을 인수한 상태임
 - 싱가포르우체국 대변인 역시 알리바바의 지분 참여가 동남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대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해 왔음

- 싱가포르 자국 물류 기업들 역시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음
 - 온라인 식료품 배송서비스 기업인 레드마트(Redmart)사는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약 2,0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

- 한편 전문가들은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를 핵심 우편사업으로 도입한 국가들의 사례를 예로 들며, 이번 물류센터의 사업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

인도 물류회사, 아마존 등의 진출에 임입어 고속 성장

(참고 : [‘インドの物流会社に熱い視線’ ネット通販市場の急成長で](#))

Reuters, 2014.10.30)

- 지난해 6월 인도에 진출한 美 아마존이 7월말 약 20억 달러를 추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데 이어, 日 소프트뱅크가 10월말 인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스냅딜(Snapdeal)에 6억 2,7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
 - 이처럼 급성장하는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에 글로벌 IT기업들이 잇따라 거액을 투자하는 가운데 인도의 물류회사들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
 -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낮은 인터넷과 신용카드 보급률로 인해 성장 가능성이 저평가 됐었지만, 현재는 저가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
 - 인터넷 이용자수가 세계 3위에 이르는 인도 시장에 대해 日 노무라(野村)증권은 인도 전자상거래 업체가 향후 5년간 4배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4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함
- 손정의 日 소프트뱅크는 사장은 이번 출자 계획과 관련해 스냅딜이 “인도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될 것” 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향후 10년간 인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
 - 인도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물류회사의 실적은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물류회사의 주가도 대폭 상승하고 있음
 - 일례로 대형 물류회사인 트랜스보드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(TCI)나 카디의 주가는 연초 대비 약 80%나 상승했음
 -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‘전자상거래 시장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면, 누구나 참여하고 싶어진다’ 고 설명하고 중국과 거의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도에는 제2의 알리바바나 텐센트(Tencent)가 탄생할 기회가 있다고 지적함

- 전자상거래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인도 물류회사들은 배송시간 단축이나 배송지역 확대 등 서비스를 확충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
 - 현재 아마존이나 스냅딜은 자사의 배송망과 사외 물류서비스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,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송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중임
 - 현지 물류회사인 바텔 인티그레이티드 로지스틱스 관계자는 “아마존은 현재 24시간 이내 배송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 분야가 우리 같은 물류회사가 참여를 목표로 하는 분야” 라고 설명함
 - 동사는 현재 아마존의 배송업무를 맡고 있지만, 아마존의 24시간 배송서비스는 아직 대상지역이 제한돼 있는 상황으로 2년 내에 전자상거래 부문이 차지하는 매출을 현재의 5%에서 20~25%로 확대할 방침임
 - 한편 아마존 현지법인인 인도 내 주문의 45% 이상이 8개 주요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해, 현지 물류회사와의 제휴를 강화할 계획임
- 아마존은 2013년 6월 인도에 진출해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 인디아를 설립하는 등 인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
 - 동사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진 인도 시장에서 자사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인도의 주요 6개 도시를 대상으로 24시간 이내 배송 보상제를 시행해 왔음
 - 또한 올 4월에는 인도 남부 방갈로르에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을 동네 가게에서 찾아가는 픽업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며, 7월말에는 인도 내 물류센터 5곳을 추가로 개장해 7개로 확대했음
 - 한편 10월에는 물류창고가 있는 뭄바이와 방갈로르에서 자사의 무인항공기 드론을 통한 배송서비스를 인도에서 선보이는 등 인도 내에서 자사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음